



## 우리 숲의 불청객, 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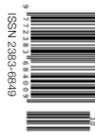
메마른 숲을 위협하는 불청객 산불.  
숲을 찾았을 때는 주의가  
불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가  
숲을 살리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MAGAZINE 숲

Vol. 10 January + February 2016



ISSN 2383-8849

Vol. 10  
January  
February  
2016

만덕산과  
동백나무

MAGAZINE

숲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매를 잊은 듯 새파랗게 빛나는 잎사귀의 싱그러움  
꽃이 피어 있는 아주 짧은 찰나가  
더할나위 없이 동백나무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놓칠 수 없는  
동백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 만덕산과 동백나무

책감피로 사용하세요.



발행일 2016년 2월 26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대반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신철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동백나무

겨울나무,  
 그래서 이름도 동백<sup>매</sup>입니다.

동백꽃은 겨울 끝자락부터 피기 시작해  
 완연한 봄이 오면 만개하죠.  
 그래서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동백나무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무척이나 수수합니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잎은  
 사철 내내 싱그럽게 빛나고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는  
 의외로 목직합니다.

이번 호 매거진 숲은  
 겨울에도 싱그러움을 전하고  
 담담하게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를 만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요.

# 冬 柏

## Vol. 10 January February 2016

### Contents

- 만덕산과 동백나무



4. 단상  
계절을 잊은 강인함  
짧은 만남의 아쉬움  
- 동백나무
6. 여행  
동백나무 잎사귀에 살포시 내려앉은 싱그러움  
이긴 시작일 뿐이야  
-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12. 역사  
세상에 이 꽃과 같은 것은 드물리라  
- 다산 정약용

16. 과학  
공존과 공생  
- 늘 푸른 잎과 동박새
18. 인포그래픽  
차디찬 겨울에도 불게 빛나는  
선연한 동백나무  
- 동백나무 정보
20. 월드 트래블  
수많은 트레커들의 로망  
- 몽블랑



22. 가드닝  
꽃의 진가는 말리는 순간  
- 드라이플라워
26. 산 그리고 사람  
당신과 내가 편안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움  
- 문화디자이너 이효재
30. 약초도감  
흙 속의 진주 한번 먹어 볼까?  
- 칙
32. 숲에서 자라는 가치  
꿈림으로 시작해 폭심으로 일궈내다  
- 파주 산머루농원
36. 어떤 날 숲  
겨울 숲에서 찾는 순수함  
- 숲체원

40. 그린 테이블  
담백하게 혹은 짹짹하게  
- 잣, 도라지
42. 캠핑  
캠핑장에서 뭘 먹지?  
- 캠핑 요리
46. 산촌일기  
산촌에서 시작하는 인생 제2막  
- 〈1화〉 산촌으로 이사 가다
50. 아트테라피  
마음을 치유하는 색칠놀이  
- 동백꽃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독자 의견

표지 · 내지는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웹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



산림청은 숲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가까이 있도록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꿉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Special

冬  
栢

단상

## 계절을 잇은 강인함

## 짧은 만남의 아쉬움

겨울 숲을 빛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잎과 아름다운 선홍 빛 꽃을 품은 동백나무입니다. 춥고 어두운 세계에서 마치 희망을 전 달하듯, 붉고 아름답게 빛나는 나무이죠.

동백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준다면, 동백나무 그 자체는 골고루 쓰임새 많은 유용한 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백나무를 삶에 가까이 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어요. 동백나무의 열매는 동백기름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꽃과 잎은 약용으로 쓰였죠. 또 나무 재질이 단단해 가구, 얼레빗 등 다양한 생활 용품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했습니다. 화력이 좋아 땀감으로도 사용했고 숯으로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요긴하게 쓰인 건 '동백기름'이었습니다. 각종 생활유, 식용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백기름은 우리 아낙네들의 머릿결을 책임졌습니다. 머리카락에 동백기름을 바르면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 준다고 하네요. 또 식용으로도 쓰이는데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동백나무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백나무는 많은 문학 작품에 등장합니다. 이규보의 '동백화(冬栢花)'는 우리나라 문헌상 동백나무를 최초로 읊은 한시라고 해요.

복사꽃 오얏꽃 비록 아름다워도 / 부락한 꽃 믿을 수 없도다 /  
송백은 아리따운 맵시 없지만 / 추위를 견디기에 귀히  
여기도다 / 여기에 좋은 꽃 달린 나무가 있어 / 눈속에서도  
능히 꽃을 피우도다 / 곰곰 생각하니 잣나무보다 나으니 /  
동백이란 이름이 옳지 않도다.

동백나무만큼 그에 대한 '느낌'이 엇갈리는 나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추운 겨울에도 곳곳하게 꽃을 피우니 절조 있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다른 나무의 꽃과 달리, 꽃이 한 번에 푹 하고 떨어지니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함', 때를 잇은 듯 새파랗게 빛나는 잎사귀의 '싱그러움', 꽃이 피어 있는 아주 짧은 '찰나가 더할 나위 없이 동백나무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



여행

## 동백나무 잎사귀에 살포시 내려앉은 싱그러움

### 이건, 시작일 뿐이야

####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잎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고 가지는 의외로 묵직하다.  
가지에 촘촘히 엮여있는 나뭇잎은 질긴 생의 감각 같기도 하다.  
필 듯 말 듯 통통하게 살 오른 꽃봉오리는 만개할 날을 기다리게 만든다.  
따로 또 같이, 한데 모인 동백나무는 그렇게 지난한 겨울을 이겨낸다.

## 남쪽으로 찾아간 봄 마중

막바지 겨울이 심술을 부린다. 추위는 옷깃을 뽐뽐 싸매도록 만들지만, 마음만은 금방이라도 뛰어올 봄 마중에 나선다.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겨울에 꽃을 피운다 했다. 그러하니 봄 마중하러 동백나무를 보러 가야겠다.

동백꽃은 겨울 끝자락부터 피기 시작해, 완연한 봄이 오면 만개한다. 추운 겨울 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틈어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셈이다. 가장 아름다운 동백나무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거듭 고민한 끝에 강진 백련사로 향한다. 봄은 남쪽 끝부터 시작되니까.

## 사철 내내 싱그러움 가득한 길

추위가 한껏 꺾인다 싶었지만, 겨울은 겨울이다 싶은 날이었다. 도처에 깔린 겨울을 온몸으로 받으며 동백나무 숲으로 향한 건, 어쩌면 봄을 향한 강한 끌림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백련사에 다다르자, 소박한 입구가 눈에 띈다. 백련사까지 이어진 동백나무 숲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다. 동백나무 숲은 사실상 백련사 일주문 노릇을 하는 곳이다. 반가웠다. 한겨울 싱싱한 잎을 가진 나무라니, 바람은 조금 쌀쌀했지만, 동백나무 잎만큼은 계절을 기습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강진 백련사에 자리한 동백나무 1,500여 그루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백련사를 감싼다. 백련사 앞뒤 그리고 옆까지 빼곡하게 동백나무다. 이곳 동백나무는 수령만 해도 200년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이곳 동백나무 숲은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구역을 나누고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있다.

동백나무 숲에 들어서자 울울창창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이 숲, 정말 독특하다. 마치 원시림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동백나무 숲은 자고로 직접 걸어봐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동백나무 기둥을 타고 오르는 넝쿨 식물은 원시림 느낌을 더욱 살린다. 보통 다른 나무와 달리,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도 그 특별함을 더한다.

동백나무는 나무 자체로만 본다면 참으로 수수하다. 화려한 동백꽃과 달리 잎은 그저 수더분하다. 곧 만개할 것 같은 꽃망울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서 펼쳐질 황홀경이 눈앞에 어린다. 곧 만개를 기다리며 통통하게 살 오른 꽃봉오리도 있지만, 봄까지 기다리지 못해 땅에 떨어진 꽃송이도 간혹 보인다.

흔히들 동백꽃은 두 번 핀다고 말한다. 나뭇가지에서 한 번 피고 떨어져 땅 위에서 한 번 더 핀다. 어쩐지 땅에 떨어진 꽃송이는 후두둑 떨어진 눈물방울 같다. 송창식도 동백꽃을 이리 노래했다 하지 않았던가.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꽃'이라고, 꽃이 지며 안녕을 고한다고 슬퍼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작별의 안녕이 아닌, 만남을 위한 안녕일 테니.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곧장 백련사다. 백련사는 소탈한 '멋'이 있다. 건축물 몇 동에 스님의 땀과 수고가 깃든 텃밭, 늙은 배롱나무 한 그루 그리고 돌계단이 전부다. 대웅전은 정겹고 응진전과 만경루는 고즈넉하다. 그렇다고 해서 백련사의 풍경까지 소탈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백련사 경내에서 바라보는 강진만과 평야는 여정의 또 다른 감상을 자아낸다. 시퍼런 바닷물도 시원한 갯바람도 모두 이곳, 백련사에 닿는 것 같다.

한편, 백련사 뒤편을 감싼 만덕산은 예부터 차나무가 많아 '다산(茶山)'이라 불렸다. 백련사와 이웃한 '다산초당'에 기거한 정약용 선생의 호도 이곳 지명에서 따 삼은 것이라 전해진다. 천산에 차나무가 깔려 있으니, 백련사도 차와 연관 깊다. 그러니 백련사 경내에 자리한 찻집에 들러 꼭 차를 맛보시길. 그윽한 녹차 향은 추위를 달래주고, 깊은 녹차 맛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1.

### 강진 백련사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백련사
- 문의 : 061-432-0837

2. 3.



1. 만덕산에 자리해 만덕사(萬德寺)라고도 부른다. 백련사를 감싼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됐다. 흡사 백련사를 지키는 호위무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2. 곧 만개할 것 같은 꽃망울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 펼쳐질 황홀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3. 백련사 경내에서 바라보는 강진만 시원하게 펼쳐진 강진만이 깊은 울림을 준다.

오솔길에 잠기다

경내를 한 바퀴 돈 후, 다산초당과 이어지는 '다산오솔길'로 향했다. 조붓한 오솔길이다. '정약용 남도유배길'의 한 구간이기도 하다. 오솔길로 향하는 길에 차밭이 무성하다. 이곳 역시 겨울을 잊은 듯한 모습이다. 차밭을 지나 나무 계단을 오르면, 본격 오솔길의 시작이다.

다산오솔길에는 정약용 선생과 혜장 스님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정약용 선생은 1808년부터 10여 년 동안 다산초당에 머물렀다. 그때 정약용 선생은 백련사의 혜장 스님을 만났다. 혜장 스님은 다산의 심오한 학문에 감탄해 배움을 청했고, 다산 역시 혜장 스님의 식견에 놀라 그를 선비로 대했다 한다. 두 사람은 바로 이 오솔길을 오가며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짓고 차를 즐겼다. 두 사람의 우정이 어찌나 돈독하였던지 깊은 밤에도 다산초당에 혜장이 자주 찾아와 정약용 선생은 밤 깊도록 문을 열어두기도 했었다. 숲은 그저 고즈넉했다. 좁은 숲길은 길손과 나무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든다. 생각보다 이 길, 길다. 빠르게 걷는다 해도 30분이요 천천히 걷는다 해도 훌쩍 1시간이 지난다. 어찌 되었든, 그러하니 사색에 잠겨야지. 자고로 숲은 '사색하는 곳'이라 했다. 정약용 선생은 이 길을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혜장 스님을 만난다는 설렘, 그곳엔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행복이, 어쩌면 정약용 선생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소식조차 모르는 어린 시절 나의 친구들,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잊고 지낸 지금의 친구들, 그들이 생각났다. 정약용 선생이 혜장 선생을 만나러 갈 때마다 느꼈을 그러한 감정을. 숲을 거닐다 보니 귤가에 스치는 소리가 무척 인상 깊다. 후드득, 휘익휘익. 스치는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혀 나는 소리다. 대나무, 비자나무, 푸조나무. 부딪히는 나무에 따라 그 소리도 제각각이다. 바람과 사색을 친구 삼아 걷다 보니 '천일각'에 다다랐다. 멀리 강진만이 시원스레 담기는 곳. 정약용 선생은 이곳에 올라 흑산도로 유배 간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며 시름을 달랬다고 한다.

4.



4. 백련사를 감싼 만덕산은 예부터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라 불렀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지나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차나무 밭. 차원이 무성하다.

5. 정약용 선생은 이곳 다산초당에 머무르며,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 다산초당 앞으로 난 연못은 선생이 직접 물을 끌어다 만든 것이다.



5.



다산초당

조선 후기,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 선생이 10여 년간 머문 곳이다. 다산 선생은 이곳에서 <목민심서>, <흠휼신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했다. 본래 초가집이었던 다산초당은, 자손들이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 관리하고 있다.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정다산초당

천일각 옆길로 난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다산초당이 나온다. 정약용 선생은 이곳에 머무르며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 개인적으로는 길고 긴 외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 시간인 것이다. 다산초당 주변은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선생이 기거했던 '동암', 물을 끌어다 만든 인공 연못, 그리고 선생이 바위에 새긴 '정석(正石)'이란 글귀까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과거와 현재가 고요히 흐른다. 작고 소박한 이곳 다산초당을 둘러 보니 선생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동백나무 숲길을 걸을 때는 한겨울에 피어나는 동백꽃의 담대함에 물들었다. 오솔길을 걸을 때는 그리움에 사무쳐 잊힌 것들을 생각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다산초당을 걸을 때는 그의 우직한 절조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해 본다. 동백의 담대함처럼 나아가고, 그리움을 추억 삼아 하루를 그려내고, 정약용 선생의 우직함을 담아 2016년을 또 한번 내딛어 보겠다고. ☺



Special

冬  
柏

역사

## 세상에 이 꽃과

## 같은 것은 드물리다

다산 정약용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그가 일군 업적과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 준다. 그는 강진에서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강진에 머무를 때 그를 위로한 동반자가 있다.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 호와 자를 통해 보는 정약용의 삶

한 사람은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삶은 자(字, 양반들이 결혼한 후에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달리 지은 이름)와 호(號, 자 이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를 통해 헤아릴 수 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도 자와 호이다. 정약용의 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자에 대해서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75-1)에서 진주목사를 역임한 정재원(丁載遠, 1730~1792)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약용은 어릴 적부터 영특해 4세에 천자문을 익히고 7세에 한시를 지었다. 어릴 적 정약용은 천연두를 앓았다. 오른쪽 눈썹에 그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다. 정약용의 호 중 '삼미(三眉)'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삼미는 정약용이 평생 품은 상처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상처를 삶의 거름으로 삼느냐 아니냐는 인생에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따라서 정약용에게 삼미는 자신의 상처를 당당하게 수용한 것이요, 상처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은 강한 의지였다.

실명 대신 사용한 자는 한 사람이 지향하는 삶을 담는다. 정약용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다. 나는 초자(初字)인 '귀농(歸農)'에 마음이 더 끌린다. 나 역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수도 있다. 귀농이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는 농촌을 이상향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귀농이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자 휴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은 그의 실학정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유배 생활과 동백나무 숲

정약용의 삶은 23세 때 이벽(李穡, 1754~1785)에게서 서학(西學), 즉 가톨릭 서적을 접한 후 바뀌기 시작한다. 서학에 매혹되었지만, 이후 제사를 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딪히며 끝내는 서학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천주교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해를 받았다.

가톨릭을 접하기 전, 그의 관료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정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희릉직장(禧陵直長)을 비롯해 가주서(假注書), 지평(持平), 교리(校理), 부승지(副承旨), 참의(參議)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특히 정약용은 문과와 이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덕분에 주교사(舟橋司) 배다리 설계, 수원성제(水原城制)와 기중기(起重架) 설계 등의 업적을 남겼다.

1800년 정조가 죽으면서 정약용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정약용이 정조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애통하게 여겼는지는 『다산시문집』 제4권 『빈소를 열고 발인하는 날 슬픔을 적다(啓引日述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조 사후에 정약용은 정계에서 배제되고 잊혀 갔다. 정조가 승하한 이듬해 1801년(순조 1) 신유사화(辛酉土禍)가 일어나 정약용 주변 인물들은 참화를 당했다. 그의 형 정약중도 참수를 당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정약용은 그해 2월 포항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에 연루되어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생활의 시작이었다. 강진에서 보낸 삶은 그에게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역사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가 남긴 학문은 18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해 처음으로 머문 곳은 사의재(四宜齋)라는 동문 밖 주막에 딸린 작은 방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예학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고성사(高聲寺)의 보은산방(寶恩山房), 목리(牧里)의 이학래(李鶴來) 집을 전전하면서 연구에 전념했다. 그가 강진 만덕산 자락 '다산초당'에 자리 잡은 것은 1808년이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 천여 권의 서적을 쌓아 놓고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학문 연구는 정약용이 긴 유배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특히 그가 유배 기간 동안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데는, '동백나무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만덕산 백련사에는 수백 년생 동백나무 1,500여 그루가 동백나무 숲을 이룬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천연기념물 제51호다. 백련사 입구부터 다산초당까지 곳곳에 자리한 동백나무는 정약용의 친구였다. 동백나무가 없었다면 그는 길고 긴 유배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정약용은 백련사의 승려 혜장(惠藏)과 동백나무 숲을 거닐면서 『역경(易經)』을 얘기하고, 세상일을 걱정했다.

### 다산(茶山)과 산다(山茶)

정약용의 호 '다산'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유배생활을 한 곳 만덕산은 다산(茶山) 즉, 차나무가 많은 곳이다. 차나무에서 탄생한 동백나무는 한자로 '산다'라 부른다. '산에 사는 차나무'를 의미하는 '산다'는 다산의 글자 순서를 바꾼 것이다. 산다의 글자 형성은 다산의 글자와 전혀 관계없지만, 내가 굳이 두 단어를 연결시킨 것은 차나무와 동백나무처럼, 정약용의 삶에서 차나무와 동백나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동백나무의 매력에 빠진 사실은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4권 『탐진 풍속 노래(耽津村謠)』 15수(首)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백나무 잎들은 얼어도 무성하고  
눈 속에 꽃이 피면 붉기가 학 이마 같아

정약용은 동백나무를 추운 겨울에 만났다. 동백꽃이 막 피어날 때쯤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학의 이마 같았나 보다. 또한 정약용이 동백꽃을 사랑한 사례는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권 『봄날 오성에서 지은 잡시(春日烏城雜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백나무의 푸른 새잎 물이 올라 싱싱한데  
잎 속의 붉은 꽃이 나그네 옷에 비치네  
꽃과 잎은 뿔과 이빨처럼 겹잡기 어렵고  
세상에 이 꽃과 같은 것은 드물리라

위의 시에서는 정약용이 멸구슬나무의 꽃이 피기 전, 동백꽃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이 동백나무에 대해 쓴 시는 단순히 유배생활의 고통을 잊기 위함이 아니었다. 관찰을 통한 '실학 정신의 실천'이었다.

18년간의 유배생활을 끝내고 정약용은 1818년 가을, 고향으로 돌아

왔다. 고향에 돌아온 뒤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고향에서 학문에 매진했다. 그는 학문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회갑을 맞이한 1822년, 스스로 묘지명을 지어 인생을 정리했다. 나는 정약용의 이러한 태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시대는 다르나, 같은 학자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몇 차례 정약용의 생가, 묘소가 있는 실학 박물관, 유배지인 충남해미, 포항 장기, 전남 강진에 가 보았다. 갈 때마다 나는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본다. 특히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 강진을 찾아가면, 피눈물 삼키며 학문에 매진했을 그가 눈 앞에 어른거린다. 그의 유적지를 찾을 때마다 나는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의 원동력을 생각했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능력을 알아 준 정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나, 정조가 죽은 후에는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후대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한 인간이 태어나 정약용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정약용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 그처럼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거나 유배생활을 경험한 이도 적지 않았다. 허나 정약용과 같은 결과를 만든 사람은 적었다. 과연 정약용의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는 그 원동력을 성찰, 창의성, 집념 그리고 더불어 삶이라 생각한다. ●

Special

# 冬 柏

과학

## 공존과

## 공생

‘겨울에 피는 꽃’을 떠올리면 동백꽃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그만큼, 동백꽃은 우리에게 친근한 겨울나무다. 동백꽃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찰 주변이다. 사찰 주변을 빙 둘러싼 동백나무는 흡사, 호위무사 같기도 하다. 동백나무가 사찰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다면, 동백나무 주변을 맴도는 새가 있다. 동백꽃의 꿀을 먹고 사는 동박새다. 동백나무를 둘러싼 공존과 공생의 이야기다.



### 산불 막는 늘 푸른 잎

동백나무는 사찰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규모는 모두 다르지만 강진 백련사, 고창 선운사, 진도 쌍계사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왜, 동백나무는 사찰 주변에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걸까? 동백나무 잎에 그 의미가 숨어있다. 동백나무 잎은 두껍고 싱그러운 빛을 띠는 ‘늘 푸른 잎’이다. 늘 푸른 잎은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불이 났을 때 잘 옮겨 붙지 않는다고 한다. 즉, 동백나무 잎은 불길의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찰 주변의 동백나무는 ‘방화수(防火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동백꽃이 떨어질 때 모습과도 연관이 깊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하나하나씩 떨어지지 않는다. 꽃봉오리가 ‘통째로’ 떨어진다. 겨울 내내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던 동백꽃이 한순간에 ‘톡’ 하고 떨어지니, 인생사 ‘무상(無常)’함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사찰 주변에 심어 중생들에게 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사람에게 인품(人品)이 있다면, 꽃들에게는 화품(花品)이 있다. 동백꽃의 화품은 예로부터 청빈한 선비의 기골을 상징한다. 한겨울에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우니 그 기개를 높이 평가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선비들은 동백나무를 매화와 함께 엄한지우(嚴寒之友)라 부르며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 동백꽃이 동박새에게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매화(鳥媒花)’다. 조매화는 수분(受粉, 수술의 화분이 암술머리에 옮겨붙는 일)을 하는데 벌과 나비가 아닌 새의 힘을 빌리는 꽃을 말한다. 크고 화려한 꽃이 많은 열대지방에서는 간혹 조매화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백나무가 유일하다. 동백나무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 그러하니 곤충들이 그 주변에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곤충을 대신해 동백꽃의 수분을 담당하는 새가 있는데, 바로 ‘동박새’다.

동박새의 모습을 살펴보자. 참새보다 작은 이 새는 몸통 윗부분은 연녹색을, 배는 하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눈 주위의 하얀 테두리는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돋보인다. 동박새는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동백꽃의 꿀과 열매를 먹으면서 산다. 아마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동박새에게 달콤한 꿀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둘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동물과 식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

### • 동백나무 여행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바닷가 낮은 언덕에 위치한다. 언덕을 오르다 보면 동백정이라는 아담한 정자가 자리하는데, 그 주변으로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란다. 강한 바닷바람을 받아 키가 작은 편이다. 이 숲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목적으로 식재되었다고 전해진다.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주소 :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 부산 해운대 동백섬

부산 기념물 제46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애초에는 섬이었던 곳이다. 오랜 세월 거친 퇴적작용으로 섬과 육지가 이어졌다. 해운대 동백섬을 둘러 보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겨울에서 봄 사이 동백꽃이 만개하면 운치를 더한다.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10-1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백제 위덕왕 24년(577) 선운사를 세운 후 조성했다. 나무 평균 높이는 약 6m이고, 둘레는 30cm다. 선운사를 빙 둘러싼 모양이 무척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문화적 가치와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차디찬 겨울에도 붉게 빛나는

## 선연한 동백나무

모든 식물이 잎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을 나고 있을 때, 선홍빛 꽃망울을 터트린다. 향기가 없어도 매혹적이고, 꽃만으로도 아름답다. 진한 녹색 잎 사이로 붉게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운, 동백나무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잘 자라요

1월이면 동백꽃이 만개

추위에는 약하지만 해풍에는 강해요

방풍림으로 식재



### 유용한 동백오일

#### 1 불포화 지방은 높고 포화지방은 낮은 동백오일

· 불포화지방



동백 오일  
80.9%



올리브 오일  
67%



포도씨 오일  
14%

· 포화지방



동백 오일  
10.5%



포도씨 오일  
11%



올리브 오일  
15.5%

#### 2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모발에 발라주세요

- 머릿결을 촉촉하게 유지
- 비듬, 가려움 예방
- 머리카락 손상을 막아 탈모, 흰머리 예방에 제격



피부에 발라주세요

-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
- 피부보호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제격

#### 차 대용으로 좋은 동백나무의 어린 잎

- 어린 동백나무 잎을 찢 후 말려서 사용
- 황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에 효과적



#### 약으로 쓰는 꽃 '산다화(山茶花)'

- 꽃이 피기 직전에 채취해 햇빛에 말려서 사용
- 지혈에 효과적이고 멍든 피를 풀거나 식히는 작용



월드 트래블

## 수많은 트레커들의 로망

### 몽블랑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아우르는 4,807m의 산이다. 이탈리아어로는 몬테 비앙코(Monte Bianco) 즉, '흰 산'을 뜻한다.

몽블랑은 18세기 중엽부터 등산가에게 주목을 받았다. 1786년 8월 자크 발마(Jacques Balmat, 1762~1834)와 미셸 가브리엘 파가드(Michel-Gabriel Paccard, 1757~1827)가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했다. 그 다음 해 발마의 안내로 스위스 자연 과학자 소쉬르(Saussure, 1767~1845)가 몽블랑산 정상을 정복했다.

유럽 최고 산맥인 만큼 화강암 바위, 빙하가 어우러진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특히 몽블랑 기슭에 있는 '샤모니 계곡'은 프랑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

# 꽃의 진가는

# 말리는 순간

생화가 탐스러운 멋이라면, 드라이플라워는 소담스러운 멋이다.  
 손에 꼭 쥐면 바스러질 것 같은, 빛바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드라이플라워는 바람과 그늘,  
 시간 외에도 나름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다. 본연의 빛과 모습이 그대로 담겨 말린  
 꽃의 최후는 전성기보다 아름답다.

스타일링, 라비앙플레르



## 드라이플라워

드라이플라워는 꽃뿐만 아니라 꽃받침, 과실, 잎, 줄기 등을 건조해 만든 것을 칭한다. 빈티지한 색감, 은은한 향, 매마른 꽃이 주는 멋스러움은 드라이플라워만이 갖는 매력이다.

선물 받은 꽃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 심심한 듯 허전한 벽에 무언가를 걸어 놓고 싶을 때, 드라이플라워를 만들어 보자. 자연스레 말리고 무심한 듯 묶어 완성한 드라이플라워는 근사한 소품이 될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나름 간단하지만, 자연의 바람과 햇빛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꽃의 형태, 꽃 고유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꽃이나 식물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꽃을 말리기 위한 장소로는 햇볕이 없고 바람이 선선한 곳이 좋다. 햇볕이 강하면 꽃 고유의 색이 짙어지거나 바랜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어 꽃이 썩는다.

꽃을 말릴 때는 거꾸로 매달아 말린다. 시들면서 아래로 축 처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러 다발을 함께 말릴 경우, 노끈이나 철사보다 고무줄로 고정하는 게 좋다. 벽면에 기대어 말리면 꽃이 눌린 채로 형태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 띄우는 편이 좋다.

드라이플라워가 완성되기까지 보통 1주에서 2주가 소요된다. 마른 후에는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형태를 고정해 주면 마른 잎사귀가 바스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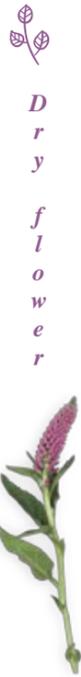
### 어떤 꽃을 말려야 하나

꽃이 싱싱할 때 말리는 게 좋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말려도 냄새가 나고 꽃 고유의 색이 변색된다. 그렇다면, 어떤 꽃과 소재들을 말리면 좋을까? 🌸



#### 말리면 좋은 꽃들

1. 유칼립투스 : 시원하면서도 특 쓰는 특유의 향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풀내음이 나서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미니장미 : 품종 상관없이 얼굴이 큰 장미보다 변색도 덜하며 예쁘게 마른다.(자나, 블랙뷰티, 햇살, 인터레이 등)
3. 안개꽃 :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나오는 안개꽃이 많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4. 골든볼 : 생화의 컬러, 느낌이 그대로 건조되는 꽃이다. 디퓨저 용기에 꽂으면 가장 깔끔하고 예쁘다.
5. 시네신스 : 스타티스 개량종으로, 말려도 형태나 색감이 변하지 않는다.
6. 미스티블루 : 안개꽃이나 오하이오 블루 처럼 다른 꽃을 빛내 주는데 제격인 꽃 종류이다.
7. 스타티스 : 핑크, 블루, 퍼플, 화이트, 옐로우 등 색상이 다양하다.
8. 라벤더 : 보라색이 상징인 꽃이다. 꽃이 잘 떨어지는 편이지만 향기가 굉장히 좋다. 떨어진 꽃들을 모아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도 좋다.



## 드라이플라워 리스 만들기

### 재료



원형 리스틀, 글루건, 리본, 꽃가위, 계피, 세무끈, 드라이플라워(상그릴라 장미, 자나장미, 인터레이 미니장미, 미스티블루, 유칼립투스 프리저브드, 열매 유칼립투스, 스타티스)



### 만드는 방법



#### 1.

드라이 소재를 준비하고, 만들고자 하는 리스를 미리 구상해 본다.(리스의 위, 아래 지정 및 큰꽃 위치, 리본 위치 등)



#### 2.

꽃과 잎사귀, 열매 등의 소재를 적당한 길이로 손질한다.



#### 3.

그림의 바탕색을 채색한다는 느낌으로 스타티스를 고무고루 리스를 사이사이에 끼워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얼굴 크기가 큰 상그릴라 장미를 리스틀에 한 방향으로 끼워 고정한다



#### 4.

계피는 삼등분하여 2개씩 세무끈으로 묶어 준비한 후, 리스를 3곳에 고정한다.



#### 5.

리스틀의 빈 공간에 미니 장미를 한 방향으로 끼워 넣는다.



#### 6.

중간 중간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 7.

리스틀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안개와 유칼립투스 열매 등을 리스틀 사이사이에 고정해 입체감을 더한다.



#### 8.

넣고 싶은 위치에 리본을 묶어 마무리한다.(리본 외에도 두꺼운 실이나 끈을 리스틀에 묶어 고정하고 원하는 곳에 걸어 장식한다)



산 그리고 사람

## 당신과 내가 편안하면

## 그것이 자연스러움

문화디자이너 이효재

'효재'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묻는다.  
디자이너야, 작가야, 예술가야? 사람들은 하나의 정의를 원한다.  
그 답에 뭐라고 답할 수 없어 성북동 '효재집'을 찾아 직접 질문을 건넸다.  
이야기를 듣던 효재의 대답은 그녀다웠다.  
"그게 다른가요? 결국 모두 하나잖아요."  
경계를 나누지 않고 영역을 구분짓지 않는 그녀의 삶.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효재처럼' 이라고 말한다



1. 그녀 집 곳곳에는 보자기로 곱게 싼 물건들이 놓여있다.
2. 그녀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예술이 된다.
3. 효재는 말한다. 지금에 충실하는 것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자연주의라고.

금부터 입 안을 가득 채우는 차의 향미. 입안에 감기는 목직함이 좋다고 하자 “비싼 차라서 그렇다”며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가만히 차를 따라주는 그녀가 나직하게 차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낸다.

“먼 과거,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부터 이어온 차래요. 정말 귀하죠. 지금 우리는 역사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껴 마시고 있죠. 시간과 세월, 그리고 역사가 이 차 한 모금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효재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하나의 ‘선(line)’이라는 것을 느낀다. 과거, 현재, 미래, 지구와 별과 우주. 효재의 시선에는 이 모든 것을 잇는 기다란 선이 존재한다. 선을 따라, 지구에 사는 그녀는 우주를 상상하고, 현재에 존재하는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파악한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공간 안에 연결돼 있는 셈이다.

구분짓지 않는 삶. 모든 것은 하나이며 아득한 과거와 먼 미래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효재이기에, 그녀와 함께 있으면 순간도 길게 느껴지고 긴 세월도 짧게 다가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 ‘효재’라는 존재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실로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꽤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람들은 제 삶을 궁금해 해요. 책과 방송, 매거진 등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평소에도 저렇게 살까’ 생각하죠. 현대 보시다시피 저희 집의 모든 것은 정말 ‘리얼’ 이잖아요. 자연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자기 자신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구분지으려고 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 그리고 공간이 자연이에요. 우린 공기를 디자인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 현재, 지금,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효재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다. 현재 자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집중한다. 그러기에 효재는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잠깐의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하늘처럼 파란 매듭실을 이리저리 꼬아가며 금세 책갈피를 만들었다. 아주 곱고, 아름다운, 그녀의 손길이 만들어낸 기다란 책갈피였다.

“오늘 비가 내리는 데도 오셨잖아요.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의 물건이 탄생하는 게 기특하죠. 이게 당신과 나를 또 연결시켜 주겠죠. 순간을 잘 지내고 싶어요. 현재를 잘 살고 싶고요. 지금에 잘 집중하니까, 우리를 연결해주는 책갈피 하나가 탄생하잖아요?” 효재는 성북동 집에서 흙을 갈고 발을 일구며 지낸다. 작게 움트는 싹을 볼 때면 지나가는 시간과 자연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고 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손수 돌보고 매만지는 그녀가 최근에는 보살펴야 할 곳을 한 군데 더 늘렸다. 충북 제천에 새 둥지를 튼 것이다. 그녀는 지금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리솜포레스트 내에 ‘효재네 딸’

을 열고 문화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서울과 충북을 오가는 생활. 그 삶이 바쁘진 않은지 묻자, 효재는 오른손 검지 첫마디께에 엄지를 살포시 포개어 내밀며 “우리나라 크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아요” 라고 답한다.

“방송도 하고 책도 내는 걸 보니 사람들은 제가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데. 한가롭게 발을 일구고 음식을 하면서 나날을 보내요. 차 한 잔 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 온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하죠. 바쁘다는 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사말이 된 것 같은데 가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바쁘시죠?’ 라는 말보다 ‘행복하시죠?’라는 인사를 더 받고 싶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니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바쁘시죠’ 라는 물음을 건넌다. 우리 스스로의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 그대로 투영된 질문일 것이다. 매일을 전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효재의 집을 찾을 때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고요, 정적, 나직함.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이 잔잔한 동심원을 그리며 유영하는 듯한 느낌. 그녀의 공간에서 현재를 음미할 수 있는 이유다.

### 편안함, 자연스러움, 그것이 효재

“자연주의, 거창한 게 있나요. 그저 지금에 충실하면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자연주의예요. 현재를 잘 지내고 하나 더. 아껴 쓰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사를 하거나 기분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물건을 버

리거나 혹은 새것을 들이죠. 하지만 저는 보던 것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보자기 포장을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속상해서요.”

그녀 집 곳곳에는 보자기로 곱게 싼 물건들이 놓여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장독의 뚜껑에는 색색의 고운 보자기가 손잡이 역할을 하고, 문고리에 걸린 옷걸이에는 윤기 흐르는 보자기가 살포시 어깨를 덮고 있다.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정갈하게 정리된 집에는 효재의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벽 한 구석에 붙어있는 시 한 편. 시를 좋아하냐고 묻자 “가장 좋아하는 글이 시” 라고 답한다. “일기를 즐기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를 더 즐기면 시가 된다”는 그녀는 집 곳곳에 시 한 구절씩 붙여 놓으면 마음이 편안하단다.

글을 좋아하기에, 글을 외면할 수 없기에 효재는 지금까지 수 권의 책을 냈다. 혹자는 이를 보고 그녀가 작가가 아닌지 되묻지만, 효재의 글은 그녀의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무엇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녀. 효재 주위를 감고 도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은 그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다.

“편안한 일을 하려고 해요. 자연스러운 일이 좋고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전 그렇게 살아요. 부러, 억지로가 아닌 모습으로요. 그게 바로 ‘효재’죠. 살아가는 모든 분들, 그렇게 지내셨으면 해요. 여러분 그대로요.”

3.



**profile**  
패션디자이너 이효재  
한복디자이너,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보자기 아티스트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이효재.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녀에게, 자연은 살림을 예술처럼 만드는 원천이다.



약초도감

## 흙 속의 진주

# 한번 먹어 볼까?

### 칫

예부터 숙취 해소에 좋다 하였다. 등산로 초입에는 칫 뿌리를 즙으로 낸 음료를 판다. 전분 성분도 많아 구황식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냉면, 국수를 만들 때 사용한다. 약용과 식용으로 우리를 모두 채워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김수, 전권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팔방미인 칫

우리나라 산과 들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생명력도 강해 토사 유실을 방지한다. 덩굴식물이라 주변 나무를 휘감으며 자란다. 나무를 타고 한없이 자라 10m가 넘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나무가 죽기도 한다. 칫덩굴에 휘감긴 나무는 햇볕을 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칫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자. 나무를 휘감고 자라 덩굴식물 같지만, 해마다 줄기가 굵어져 '나무'로 분류된다. 특히 바로 이 칫 뿌리를 식용과 약용으로 쓴다. 잔뿌리는 뜯어내고 껍질을 벗겨 햇빛에 말린 후 사용한다.

칫 뿌리에는 전분이 약 15% 들어있어, 과거에는 '구황작물'로 사용했다. 요즘은 국수나 건강식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뿌리를 다리면 단 맛이 나 차 대용으로 마실 수 있다. 뿌리를 차로 마실 경우, 뿌리로 약 기운이 내려왔을 때 사용해야한다. 채취 시기는 주로 잎이 시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초봄이 좋다. 한 겨울 언 땅을 파 채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채취한 칫은 일명 '겨울 칫'이라 하는데, 약성이 강한 약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된다.

칫의 효능으로는 '숙취 해소'가 대표적이다. 칫에 함유된 카테킨(Catechin) 성분은 숙취 해소에 좋다. 식물성 에스트로젠인 다이드제인(Daidzein)이 풍부해 갱년기 여성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 또한 고열, 두통, 고혈압, 설사, 이명 치료에 약으로 쓰인다. 또한 설사 치료에 효력이 좋아 '성약(聖藥)'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속이 냉한 설사 말고 열이 많아 발생하는 설사에 좋다. 즉, 평소 열이 많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섭취하면 좋다.

앞에서 칫은 주변 나무를 타며 자란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나무가 죽기도 한다. 따라서 칫을 '잡초'라 여겨 제거하기도 한다. 사람에게겐 한 없이 좋은 보약이지만 나무에겐 '고통'인 셈이다. 허나 잡초로 분류해 박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칫의 진가부터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효능이 칫에 있을 지도 모르니까. 🍵

### 어떻게 먹을까

1. 칫 차  
칫 뿌리를 깨끗이 씻어 잔뿌리는 제거하고 껍질은 벗긴다. 칫 뿌리 한 줌과 물을 넣고 끓인다. 1~2시간 내외로 끓여주면 된다. 대추, 생강, 감초를 함께 넣고 끓여 줘도 좋다. 우린 칫 차에 꿀을 타 마셔도 좋다.

2. 갈근 주  
칫 뿌리 1kg을 깨끗이 씻어주고 물기가 없도록 말린다. 말린 칫 뿌리를 토막을 내고 소주 3~6L를 붓는다. 서늘한 곳에 3개월 정도 보관하면 완숙한다. 색은 짙은 갈색을 띄고 맛은 달콤하다.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꿀을 가미하면 더욱 깊은 맛이 나는 술이 된다.

3. 칫 즙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면 숙취에 좋다. 칫 뿌리 400g에 물 2컵을 넣어 즙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기호에 따라 꿀, 설탕을 넣어 마시면 좋다.

### • 칫의 효능



#### 1.

**숙취 해소**  
동의보감에 따르면 '차기운 기운에 의해 발생 하는 두통을 없애주고 인체의 수분을 보충 해주는 효능이 있어 술에서 빨리 깨어나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다. 칫에는 알코올 분해 촉진 효소가 있어 갈증을 없애주고 구토와 설사를 다스린다.



#### 2.

**갱년기**  
칫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이다. 대두의 30배, 석류의 625배나 된다. 때문에 안면홍조, 발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을 없애준다.



#### 3.

**피부 미용**  
비타민, 단백질,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피부염, 여드름 피부 치료에 효과적이다.



#### 4.

**중금속 배출**  
중금속을 포함한 황사,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유입되면, 체내에 쌓이게 된다. 체내에 쌓인 중금속은 악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칫은 중금속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칫이 함유한 폴리페놀(polyphenol)이 중금속을 해독하고 분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뇨작용이 활발하도록 도와준다.



1.



2.

1. 산머루농원 와이너리. 산머루 와인을 저장하는 오크통이 가득하다.  
2. 산머루 재배에서 가공, 그리고 서비스까지, 성공한 6차 산업으로 손꼽히는 산머루농원의 서우석 회장.

숲에서 자라는 가치

## 끌림으로 시작해

## 독심으로 일궈낸다

### 파주 산머루농원

시작은 산머루 '재배'였다. 고생만큼 수입을 거둘 수는 없었다.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했고 수확한 산머루를 판매하지 못하면 버려야 했다. 그때부터 재배한 산머루를 '가공'해 와인을 만들었다. 만든 와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공 공장 근처에 홍보관과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 시작은 단순했지만, 아이디어는 남달랐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그를 성공한 농사꾼이라 말한다. 1차 산업(농업)을 바탕으로, 2차 산업(제조)과 3차 산업(서비스)을 결합해 새로운 6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선도하는 산머루농원, 서우석 회장의 이야기다.

### 우연한 발견 우연한 끌림

산머루농원 서우석 회장이 처음부터 산머루를 재배한 건 아니었다. 젊은 시절엔 택시를 운전했다. 이후 파주 감악산 아래 터를 잡고 흑염소를 키웠다. 흑염소 몇 마리를 데리고 감악산에 오른 게 우연한 기회였다.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데 탐스런 산머루 한 송이가 서 회장 눈에 들어왔다. 다음날, 그 다음 날에 찾아가도 산머루는 언제나 탐스러웠다. 그때 이러한 생각이 서 회장의 뇌리를 스친다. "이런 산중에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데, 밭에 옮겨 심어 사람 손으로 일구면 더욱 잘 자라겠구나." 그 후 서 회장은 열매가 잘 달린 산머루 몇 그루에 표지를 해 두었다. 이듬해 봄, 표지한 산머루 12그루를 캐 밭에 심었다. 허나, 야생 산머루를 밭에서 기르기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분명 열매가 달렸던 나무만 캐 가지고 왔는데, 단 한 그루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답을 찾기 위해

물어 물어 산머루를 개량해 키운다는 민간 육종가 김홍집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때 서 회장은 암나무에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열매가 열리려면 암나무와 수나무를 함께 심었어야 했는데, 서 회장은 암나무만 심은 것이었다. 그 후로 서 회장은 김홍집 씨에게 개량 산머루 1,500그루를 구매해 1,500평에 심었다. 당시 산머루 한 그루 당 가격은 1,500원꼴이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서 회장은 그 가격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홍집 씨가 20여 년 동안 연구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될 것이라 기대와 달리, 이번에는 산머루가 얼어 죽고 말았다. 1,500그루 중, 단 5그루만이 살아남았다. 그때 서 회장은 "기필코 산머루를 소득 작목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재배 방식을 총 3번 바꿨다. 노력 끝에 결실이라고 하였던가. 산머루가 얼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질소 과다'였다. 산머루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질소 과다는 식물을 얼어 죽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 후 서 회장은 나름의 재배 방식을 구축해 산머루 재배에 성공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재배 방법을 정립해 국내 최초로 머루 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 6차 산업의 문을 열다

서 회장의 열정은 산머루 재배에 그치지 않았다. 1차 산업인 '재배'로만, 우리 농가가 살아남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농업의 특성상 한 해 동안 재배한 농작물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했다. 수확한 산머루를 폐기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때 든 생각이 바로 '가공'이었다.

“산머루를 활용해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각난 게 '산머루 와인'이었어요. 그렇게 산머루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죠. 어릴 적 누룩을 넣어 막걸리를 만드는 걸 본 기억이 났어요. 처음엔 누룩을 넣어 봤죠. 막걸리 맛이 나더군요. 다음엔 효모를 넣었어요. 술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역시 빵 맛이 나더군요.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마침, 저희 산머루농원에 방문한 분께 도움을 받아 산머루 와인 만드는 효모와 기술을 전수 받게 되었지요.”

‘맨땅에 헤딩’한 결과는 의외로 좋았다. 2010년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판매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넓혔다. 산머루 와인을 일본과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현재 협상 과정에 있다.

본격적으로 산머루 와인 생산에 나서면서 서 회장은 마을 농가들과 산머루 재배에 나섰다. 5농가로 시작된 것이 현재 파주 적성면 49농가가 산머루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큰 소득이자, 산머루 가공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한 셈이다.

가공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 그 후부터가 더

## ● 파주 산머루농원 체험



1. 와인 만들기



2. 잼 만들기



3. 초콜릿 만들기



3.

4.

3. 농업의 특성상 한해 동안 재배한 농작물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수확한 산머루를 폐기하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서 회장은 산머루 와인을 만들었다.

4. 우연한 발견이 서 회장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되었다. 산머루는 서 회장에게 그런 의미다.

5. 감악산 지층에 굴을 뚫어 와인 저장고도 만들었다. 와인 저장고에 들어서자 양쪽 가득 채워둔 오크통과 옹기 가 눈에 띈다.



5.

큰 과제였다. 바로 유통의 한계였다. 와인까지 만든 성공한 농가였지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도 거듭 고민했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6차 산업'이었다.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농장 옆으로 와인 공장을, 와인 공장 앞으로는 홍보관과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오로지 산머루농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어요. 나만의 와인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머루잼 만들기 등 소비자의 시각에 맞춘 것들입니다. 연간 체험객만 해도 6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뿌리 내린 1차 산업이, 산머루농원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재배부터 와인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산머루농원은 산림청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많은 조연도 받았다. “산머루를 재배하면서 산림청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 시설을 위한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상품 개발 후 디자인 조연도 톡톡히 받았죠.”라며, 자신의 열정을 높게 평가 받은 덕분이라며 뿌듯해 했다.

### “6차 산업은 뿌리 깊은 나무”

산머루농원에는 '산머루' 이야기가 가득하다. 지금은 시멘트로 덮여 버렸지만, 재배를 처음 시작한 장소에 그때 살아남았던 산머루 한 그루를 증표 삼아 남겨 두었다.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서 회장의 지론이었다. 와인 저장고 입구 벽면은 산머루 재배부터 와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정을 스토리로 담았다.

서 회장이 안내하는 이야기를 따라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는 내내

그는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했다. 40여 년 동안 한 길만 걸은 그에게서 어떤 '우직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그에게 6차 산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를 청했다. 평생을 휴과 우여곡절을 겪은 농부다운 답변이 돌아왔다. “재주부리지 말고 미련해야 합니다.” 그가 말한 미련이 단순한 아집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식물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것. 묵심 있는 미련이야말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농사꾼의 원동력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30년 전 심은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철학적인 한 마디를 건넸다. “6차 산업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6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1차 산업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죠.” 서 회장은 앞으로 자신의 철학을 농업인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의 농원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어 두고 있다. ☺

### 파주 산머루농원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7-1
- 문의 : 031-958-4558
- 홈페이지 : sanmeoru.com



어떤 날 숲

# 겨울 숲에서

## 찾는 순수함

바람의 온도가 더욱 낮아질수록 사랑의 온도는 더욱 뜨거워진다.  
어느 때보다 꼭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숲은 이러한 찰나를 함께하기에 제격인 낭만의 장소.

### 연인의 설렘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되기까지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첫 눈에 반하거나 호감이 쌓여 사랑으로 발전하거나. 전자의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에 스며든다. 알 수 없는 끌림이 사랑으로 증폭되고, 근거 없는 후광이 번쩍인다. 처음엔 성격도 취향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물 들어간다. “대학교 때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만났어요. 동아리 MT를 갔는데,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이 저녁 늦게 MT에 합류했어요. 그 순간 남편 뒤로 ‘후광’이 번쩍이는 게 아니겠어요.” 군대를 전역한 남편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했다. 캠퍼스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고, 취업 준비를 함께 하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걱정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꿈결 같은 시간은 8년이나 흘렀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 보니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있었다.



1.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일 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두 사람.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숲체원을 찾았다.
2. 숲체원은 강원도 횡성 청태산에 위치한 '치유의 숲'이다.
3. 다짐패 만들기를 시작하자, 남편의 얼굴이 사뭇 달라진다. 장난스런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 일색이다.
4. 두 사람이 완성한 다짐패.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 분은 독자 엽서, 이메일을 통해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연인의 따뜻한 설렘은 가족이라는 편안함과 신뢰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부부가 되자 너무나도 달랐던 성격도 취향도 어느새 퍼즐 조각처럼 '적척' 들어맞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가는 것도 없이 어느새 두 사람은 '남매'처럼 닮아가기 시작했다. 가족이 된 두 사람은 어느덧 '일 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다. 도심의 '빠름'을 피해 느리지만 여유로운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어 '숲체원'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가장 순수한 숲의 시간을 만나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수궁이 갈 정도로 강추위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김혜영 씨는 남편 김재현 씨와 특별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고 싶었다. 사람들 몰리는 도심지는 싫었다.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 그저 그런 이벤트는 싫었다. 남편 김재현 씨와 함께 앨범에 넣어두고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김혜영 씨가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된 일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숲체원은 강원도 횡성 청태산 7부 능선에 조성된 '치유의 숲'이다. 정상까지 '테코로드'로 이어져 있어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까지 편안하게 오를 수 있다. 숲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탐방로, 체험로도 다양하다. 생태원, 고사리원, 식용식물원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격이다. 부부는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산행 대신, 숲길에 연결된 테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겨울 산을 만났다. 숲체원의 송지연 선생님 설명에 따라 부부는 잊고 있던 동심을 꺼내어 숲 속에 풍당 빠져든다. “겨울은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나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숲을 걷다 보면 나무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도심에서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만다. 이렇게 숲으로 들어오니,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도 관찰해 보고 나무에 기생해 산다는 미생물도 처음으로 마주해 본다. 그렇게 테크를 따라

숲을 걷다 보니 숲속 전망대에 다다른다. 적막만이 흐르는 숲의 허파에 서서, 부부는 고요히 흐르는 바람과 공기를 마시며 호흡한다. 살이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온 몸을 스치지만, 그 겨울 속에서 자연을 느껴본다.

**두 사람의 순수한 희망을 담아**

부부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목공 체험관. 자연에서 얻은 목재로 생활 용품을 만드는 곳이다. 숲체원은 목재 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목재의 우수성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무얼 쓰고 있냐고 물으니 “비밀이에요”라며 편지를 가려 부부의 소원을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무얼 쓰는지 훤히 알 것 같았다. 아마 부부의 편지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것이다. 부부는 하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는 '다짐패 만들기'를 시작했다. 목재 위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새기는 DIY 프로그램이다. 부부를 위해 준비된 나무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편백나무.

새기고 싶은 글자를 시트지에 쓰고 모양대로 오려 편백나무에 붙인다. 모래를 분사하는 '샌드블러스트'에 넣으면 시트지를 붙인 곳을 제외한 공간이 깎여 나간다. 그 후 원하는 색의 싸인펜과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해 '멋'을 내면 나만의 다짐패가 완성.

한껏 들뜬 사람은 아내보다 남편. 남편은 “학교 다닐 때 미술 정말 못했는데...”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짐패를 만들기 시작하자 남편의 얼굴색이 바뀐다. 사뭇 '진지'해졌다. 얼굴까지 별게저가며 열심히 다짐패를 만들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요, 저희 아이 방에 놓을 건데 열심히 해야죠.”

남편은 언젠가 부부에게 찾아올 아이를 위해 방문에 매달 '명패'를 만들겠다고. 목재에 새겨진 '아이방'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오리고 붙이고 다듬고 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다짐패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테크가 깔린 숲을 걷고 자연이 준 목재로 다짐패를 만들어 보니, 자연이 주는 기쁨과 힘은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살포시 눈 덮인 숲체원의 풍경, 맑은 공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매일 숲으로 나들이 오고 싶어요.” 처음 마주친 순간 첫눈에 반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 자연스레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이 자연의 순수함과 닮아 보였다. 그렇게 부부는 하루를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으로 채운다. 🌲

**숲체원**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도내면 청태산로 777
- 문의 : 033-340-6300
- 홈페이지 : [www.soopchewon.or.kr](http://www.soopchewon.or.kr)

**산림 체험 교육**

- ① 유아숲 숲체험 교육
  -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숲 오감 체험, 자연 공작, 곤충 탐험 등 체험 교육
- ② 청소년 산림 체험 교육
  -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
  - 인성 함양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다양한 청소년 단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③ 사회적인 산림 체험 교육
  - 직장인,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 임산부, 미혼모, 편부모 가정 등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교사, 산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 담백하게

# 혹은 씹싸름하게

## 도라지, 잣

몸과 마음이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  
이럴 때일수록 피부와 몸속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야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안과 밖을 책임져줄 인삼물, 잣과 도라지다.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어시스트: 박재원

### 도라지 검은깨 찹쌀 튀김

#### 재료

도라지 350g, 찹쌀가루 1컵, 검은깨 2큰술, 소금 ½큰술, 물 1+½컵, 멧가루용 찹쌀가루, 포도씨유 적당량씩

#### 만들기

1.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굵은 소금을 뿌려 바라바라 주무르듯이 씻은 다음, 방망이나 밀대로 두들겨 부드럽게 편다.
2. 도라지를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쓴맛을 뺀 뒤, 건져서 키친 타올로 가볍게 물기를 뺀다.
3. 도라지에 찹쌀가루를 묻힌 뒤 날가루를 털어내고, 찹쌀가루와 검은깨, 소금, 물을 섞어 만든 튀김반죽에 담가 튀김옷을 입힌다.
4. 3.을 포도씨유에 넣고 노릇하게 튀겨낸 다음, 꿀을 함께 곁들여낸다.

### 잣소스 찹쌀경단

#### 재료

찹쌀가루 1컵, 뜨거운 물 ½~¾컵, 소금 약간  
잣소스 - 잣, 꿀 2+½큰술씩, 간장 1큰술

#### 만들기

1. 찹쌀가루에 소금과 뜨거운 물을 넣고 매끈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익반죽한다음,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경단을 빚는다.
2. 팔팔 끓는 물에 1.을 넣고 익혀서 떠오르면 건져서 찬물에 행귀 건진다.
3. 잣소스를 만든다. 잣은 기름기 없는 팬에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운 뒤, 곱게 다진다. 여기에 꿀과 간장을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든다.
4. 경단을 그릇에 담고 3.의 잣소스를 끼얹어 완성한다.

#### Tip.

잣은 약불에서 전체가 노릇해질 정도로 살짝 볶아두면 고소한 맛이 훨씬 강해진다. 단, 산패(맛이 나빠지거나 색이 변하는 것)도 빨리지니 먹을 만큼씩만 볶아 준비하도록 한다.

#### Tip.

도라지 특유의 쓴맛을 제거하려면 굵은 소금을 이용해 주무르듯이 씻은 뒤, 찬물에 담그면 된다. 더 빠른 방법을 원한다면 소금을 넣은 물에 넣고 데친 뒤, 찬물에 행귀 건지면 된다.

# 캠핑장에서

## 뭘 먹지?

### 캠핑 요리

캠핑의 묘미는 뭐니뭐니해도 '요리'다. 집에서 꿈꿀 수 없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 바비큐는 캠핑장의 낭만을 더해주고, 뱅쇼 한 잔은 캠핑장의 맛을 한껏 채워준다. 또한 임산물이나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특산물로 만든 요리는 그곳 캠핑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한다. 그러나 캠핑 요리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몸 또한 부지런해야 한다. 준비물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꼼꼼함'과 요리 후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민첩함'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글. 윤은숙 캠핑 요리 연구가



### 나른한 시간에 두릅 쇠고기 말이 한 입



산채의 제왕이라 부르는 두릅은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기특한 녀석이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정리를 마친 뒤 물려오는 나른한 시간에 안성맞춤인 메뉴! 계절이 아니어도 쉽게 두릅을 구할 수 있으니, 캠핑장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요리를 먹고 나면, 어쩐지 봄도 빨리 와 줄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재료  
두릅 10개, 불고기용 소고기 10장, 계란 1개, 찹쌀가루 5큰술, 불고기 양념 2큰술  
(불고기 양념: 간장 5, 맛술 2, 매실 액기스 2, 물엿 1, 참기름 1, 마늘 후추 조금)

1. 양념으로 고기를 약하게 밑간한다.
2. 두릅은 겉껍질을 떼어내고 밑동을 지른 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다.
3. 밑간한 불고기용 고기를 펼쳐 데친 두릅을 감아준다. 두릅을 감은 소고기를 찹쌀 가루에 묻힌 후 소금 간한 계란 물에 담군다.
4. 기름 두른 팬에 올려 구워주는데, 모든 면이 익을 수 있도록 굴러가면서 굽는다.

### 화롯대에 둘러앉아 뱅쇼 한 잔



뱅쇼(Vin Chaud)는 오렌지, 레몬, 감귤 등과 함께 계피, 정향, 꿀을 넣고 끓여 따뜻하게 마시는 프랑스 음료다. 주로 감기 예방 차원에서 많이 마신다. 요즘처럼 날이 추운 날, 특히 캠핑장 화롯대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마시기에 그만이다. 와인이지만, 한 번 끓이면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이들이 먹어도 무방하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하게 먹으면 쌍화탕만큼이나 효험이 있다.

재료  
붉은 와인 1병, 과일 주스(사과, 배, 크렌베리 주스 등) 1병, 감귤 1개, 레몬 1개, 통계피, 정향(향신료의 일종), 꿀이나 흑설탕 1/2컵

1. 주전자, 냄비에 와인과 과일주스를 아낌없이 다 붓는다. 정향은 레몬이나 감귤 껍질에 꼭! 박아준다.
2. 모든 재료를 넣고 팔팔 끓여준 뒤 20분 뒤 중간 불에서 은근하게 졸여준다.
3. 꿀을 기호에 따라 넣어준다. 흑설탕, 황설탕도 좋다.
4. 남은 뱅쇼는 밀폐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데워먹어도 좋다.

## Before



1. 여유롭게 행주 두 장을 챙긴다.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 손을 닦는 용도 외에 식기류를 닦거나 마지막 철수 때 미처 말리지 못한 주방기구를 닦을 때 사용하면 요긴하다. 설거지한 그릇을 행주로 닦아주면 기름기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2. 종이호일, 기름종이를 챙기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캠핑장이라면, 기름진 그릇을 닦기란 쉽지 않을 일. 그럴 때 종이 호일, 기름 종이를 사용하면 좋다. 음식을 먹고 난 뒤 종이 호일만 제거하면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야채는 집에서 손질한 후 지퍼 팩에 담아간다.  
캠핑장에서 사용한 야채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게 되면 물러지는 경우가 많다. 야채는 필요한 만큼 손질해 지퍼팩에 담아가도록 하자. 짐의 부피와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4. 집에서 미리 양념장을 준비한다.  
미늘과 피는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썰어 밀폐용기에 담아간다. 그 외의 메뉴에 따른 양념도 미리 만들어 가면 갖은 양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요리가 한결 간편해진다.

## After



1. 설거지를 마친 나무로 된 식기류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햇빛에 말리거나 행주를 이용해 닦아준다.
2. 세제를 담은 통과 수세미도 빠뜨리지 말고 잘 말려둔다. 수세미에 살고 있는 세균을 완전 박멸!
3. 통풍이 잘되는 곳에 그릇을 말려두면 햇볕이 아니어도 잘 마른다. 집시 꽃이, 캠핑 전용 설거지 망을 이용해도 좋다.



[윤은숙 캠핑 요리 연구가]  
블로그 '보노의 풍경(<http://blog.naver.com/koogee99>)'을 운영한다. 100회 이상의 캠핑 요리 강좌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카페 동호회에서 '바비큐와 캠핑요리'를 강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캠핑요리 절대 가이드(삼성출판사), 보노보노의 두근두근 캠핑요리(보랏빛소) 등이 있다.



산촌일기

## 산촌에서 시작하는

# 인생 제2막

### <1화> 산촌으로 이사 가다

세종시에 전원주택을 지어 아내와 함께 산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한 이곳에서 벌써 11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게 모두 그러하듯, 실수와 실패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어느덧 산촌 생활에 적응하며 숲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 이용길

### 그저 마음 먹은 대로

외국계 회사에서 19년 정도 기획 관리 일을 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었죠. 마음은 언제나 산에 들어가 꽃과 나무를 키우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 꿈이 뜻밖에 빨리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2001년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년을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냈지요. 그러다 공여지책으로 선택한 길에 시골에 집을 짓고 나무를 키우며 사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이 있어 개간 허가를 신청했고 2004년 개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매일 충남 천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집터와 밭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땅을 갈았죠. 힘은 들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자 우리 부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황무지가 된 산을 보고 사람들이 더러 실망을 했습니다. 그저 “전망은 좋더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친척, 지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들어가 산다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는데, 황무지가 된 산을 보시고는 저희

얼굴도 보시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일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집들이 차 저희 집에 오셨으니, 어머니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것 같네요. 사람들은 홍수 피해와 넓은 밭 관리를 걱정할 것 같아요. 세상은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저와 아내는 전망 좋은 집터와 잘 자라줄 나무를 그렸거든요.

그해 겨울, 동생에게 여러 종류의 나무를 받았습니다. 황무지가 된 자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본 경험이 없어서 제각기 다른 의견을 들으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심은 나무가 세찬 바람에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때의 참담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요.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일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 산촌일기

산촌에서 살아가는 이용길 씨의 이야기를 총 6회에 걸쳐 담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여곡절 끝에 산촌에 정착한 에피소드입니다.

있겠네요. 최선을 다해 작품을 그렸는데, 찰나에 물감을 엮은 꼴이 된 거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인부들을 구해 쓰러진 나무에 지지목을 세우고 겨우 틀을 잡았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 시련도 시간이 약이다

200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은 여기저기 집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시 연기군(현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을 등산하다 '야호래'란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뜻밖의 발견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단어입니다. 야호래를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떠올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야호래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시게 되셨거든요.

야호래를 구경하면서 주인 내외와 아는 사이가 됐고, 그 후 저희 집을 지어주실 사장님을 소개받았어요. 바로 계약을 하고 날이 따뜻해지면 집을 짓기로 약속했죠. 내부 설계 도면을 그리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안주인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사장님께 위임했습니다.

안주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장님은 집을 짓는 동안, 저는 준공 검사 준비로 마무리가 될 뻔 경사면을 톱과 낫을 이용해 다듬었습니다. 20여 일 동안은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거름이 없는 황무지에 꽃을 심으니 죽기도 많이 죽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거름도 주면서 가꾸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영양 상태가 좋아야 잘 성장하듯, 꽃과 나무에 '거름'은 정말 필수라는 걸 배웠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은 잘 흘러가더군요. 고통을 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에 열중하는 게 좋다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안주인의 아픔에 비례해 저희 집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지...'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합니다'란 말을 의식적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집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안방은 크고 주방은 작고,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외관에 더 많이 치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집을 지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장님은 쾌재를 불렀죠. 가뭄 덕분에 장마 전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름도 붙였죠. '목인동(木人洞)'. 나무와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목인동은 저희 집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제 이름이 목인동인 줄 알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시골 최소 행정 단위인 리(里) 뒤에 마을 동(洞)이 있다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무튼 목인동이라는 이름 덕분에 나무와 더불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나무와 동화되어 하나인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첫 해를 보내다

집이 완성되어, 그해 5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마는 6월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맛비도 비지만 웬 천둥벼락이 요란히도 치던지... 가전제품이 벼락을 맞아 고장이 났습니다. 하루는 컴퓨터, 하루는 전화기, 하루는 정수기... 벼락은 전신주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때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음 해 어느 분이 농업용으로 전신주를 설치해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샴을 들고 살았어요. 여기저기 장맛비에 독이 터진 티라,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 도랑과 독을 정비했죠. 정말 곤혹을 치렀어요.

7월 초에는 개간한 밭 2,000여 평에 서리태를 심었습니다. 서리태를 심을 때는 마침 장마철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콩 씨를 심어야 하는데 밭이 수렁 같아 걷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1. 봄이 오면 우리 집 앞마당은 꽃들로 가득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제가 부지런히 심은 덕분이죠.
2. 소일거리를 하며 산촌 생활에 재미를 붙여보기도 합니다.
3. 집 밖뿐만 아니라, 집 안에도 나무로 가득합니다. 나무는 항상 활력과 행복을 주거든요.
4. 뒷동산에 오르면 너른한 들만이 한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 [이용길]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 게 기억나네요. 우여곡절 끝에 씨를 심고 계절을 기다리니 서리태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웬걸, 이번에는 수많은 까치 떼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 새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짝이 줄도 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강아지와 함께한 여유로웠던 한 때였던 것 같네요.

그럭저럭 콩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수확이 많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유기농으로 키운다고 약속 안 했더니 태반이 '쪽정'이었습니다. 콩을 털어 팔아 보니 수입이 200만 원 정도. 경비를 제하고 나니 완전 '적자' 농사였죠. 그래도 공주 영평사에서 사다 심은 구절초가 집 주변으로 잘 자라주어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잘 견디고 가을에 예쁘게 피어나서 얼마나 기뻐던지요.

별써 이곳에서 맞는 11번째 겨울입니다. 땅과 함께 살아가니, 땅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모토를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로 삼았습니다. 땅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은 거름과 친해지는 일이기도 하죠. 전원생활은 비로소 땅을 사랑할 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 귀산촌, 미리 배워 보세요

산림청은 귀산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서 생활하며, 임산물 재배 체험, 성공 입업인과의 만남, 귀산촌인 지원정책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귀산촌 관심반 : 귀농·귀산촌 철학적 이해, 산림농업의 이해 및 현장견학, 귀산촌 길라잡이, 산촌 6차산업의 이해
  - ② 입업기술반 : 임산물 수확 및 가공실습, 산림복합경영 교육,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교육
  - ③ 산촌사업반 : 산촌사업의 이해, 산촌체험 교육실습, 리더십 함양 교육, 지역특성화 6차산업
- \* 기타 문의 사항은 (사)생태산촌(02-747-6009)로 문의하세요.

### 2. 4.



# 마음을 치유하는 색칠놀이



● 동백나무

안녕하세요. 동백나무예요.  
 빨강게 피는 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저는 겨울 꽃일까요? 아니면 봄 꽃일까요?  
 겨울 '동(冬)'자가 이름에 붙었으니 겨울 꽃 같기도 하고  
 봄이 오기 전 피어나 봄을 알리니 봄 꽃 같기도 한가요?  
 사실 제가 겨울 꽃인지, 봄 꽃인지를 알려면  
 저를 만나러 겨울 남쪽 섬으로 오시면 된답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남쪽 섬에 겨울이 오면  
 선홍빛 동백꽃이 수를 이루거든요.  
 자, 이제 그림 아시겠나요?  
 혹시 저를 만나기 힘든 곳에서 저를 그리워하며 사시나요?  
 그렇다면 아트테라피를 따라 저를 색칠해 보세요.  
 그리움과 아쉬움을 달래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과명 차나무과 학명 *Camellia japonica* L.  
 분포지 나무 도서 지방과 해안가 개화기 12월~3월 붉은색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있는 나만의 동백나무를 보여주세요!

# 독자 여러분의

#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5년 11+12월호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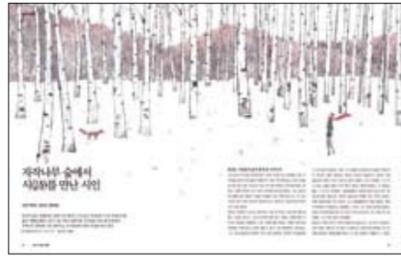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6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11+12월호 <비밀의 정원> 내용을 정정합니다. <비밀의 정원>에 실린 사진은 작살나무가 아닌, 좀작살나무입니다.



예전부터 꼭 한 번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습니다. 이번에 매거진 숲을 통해 자작나무 숲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네요. 순백의 눈과 함께 뽀뽀하게 서 있는 자작나무 숲을 보니, 겨울이 가기 전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네요. 이규희\_서울 동작구



백석 시인과 자작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읽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를 통해 가보지 못하는 땅, 함경도를 거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순옥\_전북 군산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단맛이 설탕인 줄 알고 껌을 씹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었네요. 또 다양한 자작나무 특성,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송공순\_대구 수성구



표고버섯 고추 잡채 호떡이 너무 맛갈스럽게 담겨, 그날 바로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었어요. 남편에게 만들어주니 계는 감추듯 후덕덕 먹어치우더라고요. 매거진 숲 덕분에 맛있다는 칭찬도 받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조향\_서울 성북구



길을 걷다 보면 간혹 목조주택을 보곤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에 잘 타지는 않음지, 비가 오면 나무가 썩지 않음지 등 여러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번 기사를 통해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었네요. 임금숙\_광주 광산구



2003년부터 산에 교박교박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테니스,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을 좋아했는데 다치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 건강에 이상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목장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흥희\_서울 강남구

